

## 2장 새로운 지도제작법(cartographe)

### 『감시의 처벌』

푸코는 글쓰기를 결코 목적이나 종국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점이 그를 위대한 저자로 만들고, 그의 책을 더욱더 환영받게 만들었다. 형벌의 신곡(Divine comédie des punitions), 그것은 그 많은 도착적인 술책들과 병소적 답률, 그리고 소심한 공포 앞에서 발작적인 웃음을 터뜨릴 정도로 매혹된 존재의 권리이다. 어린이들에게 자위를 금지하는 장치로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감옥의 기계(mécanismes)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연쇄적인 전체가 전개되면서 치욕과 고통과 죽음으로도 가려야 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웃음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다. 고문집행인들은 좀처럼 웃지 않는다. 혹은 그들의 웃음은 다른 것들과 동일하지 않다. 발레(U. Valles)는 이미 고문집행인들의 끔찍한 쾌활함과 혁명가들이 공포의 와중에 갖는 기묘한 쾌활함을 대조한 바 있다. 증오가 어떤 것을 구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면 증오의 양가적 감정으로서의 기쁨을, 즉 증오하는 기쁨이 아니라 생명을 불구화시키는 것은 그 무엇이든 파괴해 버리기를 원하는 기쁨을 지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푸코의 『감시와 처벌』(*Surveiller et punir*)은 양식의 화려함과 내용의 정치적 성격이 혼합된 하나의 환희, 즐거움으로 충만해 있다. 그 책은 애정을 감춘, 무시무시한 묘사로 점철되어 있다. 다미앵(Damien)에 대한 어설론 고문\*과 그 실패, 전염병이 덮친 도시와 그 도시가 봉쇄되는 방식, 도시를 통과하면서 사람들과 공개적인 대화를 나누는 죄수들의 쇠사슬 행렬. 그리고 ‘처벌(punir)’기술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의 정표로서의 감옥, 호송차 등의 폐쇄적 감금장치들. 푸코는 항상 생생하게 장면들에 대한 분석을 해 나간다. 이리하여 분석은 점점더 미시물리학적 이 되고, 더불어 그 광경은 점점더 물리학적인 것이 되어 분석의 ‘효과’를 표현하게 된다. 이때 분석의 ‘효과’란 인과적 방식이 아니라, 빛과 색채의 사용에 의한 결과이다. 즉 고문당한 죄수의 피부색으로 채색된 그 붉은색은 음울한 감옥의 회색과 대비된다. 분석과 광경은 서로 대응하면서 권력의 미시물리학(micro - physique)과 신체에 대한 정치적 포위를 드러낸다. 이 같은 광경은 밀리미터 단위로 매우 세밀하게 그려진 지도 위에 묘사된다. 『감시와 처벌』은 푸코의 이전 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결정적인 일보를 내딛은 것이다.

산만하고 심지어 혼란된 방식이긴 해도, 좌파를 특징짓는 것이 있다. 이론적으로 그것은 권력의 문제를 재차 문제제기해 왔는데, 이는 맑스주의와 부르주아 사고 모두를 겨냥한 것이었다. 또 실천적으로 그것은 국지적이고 특정한 투쟁의 어떤 형태, 그 관계나 필연적 동일성이 더 이상 전체화나 집중화의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타리가 말하

\* 『감시와 처벌』은 국왕실해 기도법 다미앵의 공개처형에 대한 세밀한 묘사로부터 시작한다. 넓은 군주제 사회의 관행에 따라 잔인하고도 고통스럽게 이뤄지는 이 처형은 그러나 대중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기는커녕, 다미앵에 대한 영웅화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어설론’ 처벌이다.

듯 횡단성(transversalité)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형태이다. 이들 실천적, 이론적 측면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좌파는 여전히 맑스주의의 지나치게 조잡한 단면을 고수, 보존, 재편하면서 스탈린주의를 포함한 넓은 실천방식인 집합적 중심화를 재구축하는 양상으로 회귀했다. 그러나 1971~1973년까지 G.I.P. (groupe information prisons, 감옥정보그룹)는 푸코와 드페르(Defert)의 격려에 힘입어 감옥투쟁과 다른 투쟁들 사이의 독특한 관계를 보유하면서 이러한 맑스주의로의 재구축을 회피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1975년 이론적 저술로 부기한 푸코는 과거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으며, 명확히 구명하지도 못했던 이 새로운 권력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감시와 처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푸코는 이를 책의 처음 몇 쪽에서만 암시하고 있을 뿐이지만). 몇 쪽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테제’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서술하기 때문이다. 그는 좌파의 전통적인 위치를 규정해 온 몇 개의 공준(postulates)을 폐기하고자 주장하는 데 머물러 있다.” 그리고 좀더 상세한 전개는 『지식의 의지』(*La volonté de savoir*)에서 이뤄질 것이다.

## 1. 소유(propriété)의 공준

권력은 그것을 획득한 계급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푸코는 권력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권력은 소유물이 아닌 전략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떤 소유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1) 『감시와 처벌』, 31-33쪽.

아니라, “다양한 배치, 조작, 전술, 기술, 기능”의 소산이다. “권력은 소 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사되는 것이고, 지배계급이 획득하거나 보존하거나 하는 특권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적 위치의 총체적인 효과이다.” 이러한 새로운 기능주의(functionalism), 기능적 분석은 결코 계급 및 투쟁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적 역사 및 맑스주의 역사에 의해서 친숙해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 다른 특징, 다른 행위를 통해 계급과 투쟁의 또다른 모습을 성립시킨다. “해이될 수 없는 대립점과 불안정한 초점들이 있으며 그들 각각은 대립이나 투쟁, 혹은 최소한 힘 관계의 일시적인 역전이라는 자신들의 고유한 위험들을 가지고 있다.” 유사성도 상동성도 아니며 또 일의성도 아닌, 연속성의 가능한 새로운 유형이 그것들과 함께 할 뿐이다. 요컨대 권력은 동질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특이성들에 의해, 그것이 경우하 는 특이적인 지점들에 의해 정의된다.

## 2. 국지화(localisation)의 공준

지금까지 권력은 국가권력이며, 권력 그 자체는 국가장치 한가운데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 때문에 ‘사적인’ 권력조치 외관상 분산하고 있을 뿐, 역시 특수한 국가장치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푸코는 이와 반대로 국가는 그 자체 어떤 전체의 효과로서, 다양한 돌니비퀴 및 구조들의 결과로서 출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돌니비퀴 및 구조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수준에 있으며 상호 독립하여 ‘권력의 미시물리학’을 구성한다. 사적인 체계뿐 아니라 국가장치의 명백한 요소도 역시 하나의 기원, 하나의 행위 및 기능을 포함한다. 국가

는 이 기원, 행위, 기능을 승인하거나 통제하거나 할 뿐이며, 스스로가 구성하는 중심은 아니고 단지 뒤늦은 것으로 만족할 따름이다.

『감시와 처벌』의 핵심 사상의 하나는 근대사회를 ‘기율적’(disciplinates) 사회로 정의한 데 있다. 그러나 기율은 제도와 다르며, 장치(appareil)와도 다르다. 왜냐하면 기율은 바로 온갖 종류의 장치 및 제도를 관통하여 그것들을 연결시키고 확산시키고 집중시키며 새로운 방식으로 기능하게 하는 권력의 유형, 권력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경찰 및 감옥과 같이 명백히 국가에 속하는 요소인 특별한 부분들이나 기구들조차 예외가 아니다.

제도로서의 경찰이 명확히 국가장치의 형태로 조직되어 정치적 주권의 중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그 경찰이 행사하는 권력의 유형, 작동되는 기계, 그것이 적용되는 다양한 요소는 특이적인 것이다.”

이리하여 기계 및 요소는 사회적인 장(champ social)의 유동적인 구석구석까지 기율을 침투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사법적 정치, 정치적 정치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독립한 채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감옥은 “한 사회의 사법적, 정치적 구조”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다. 감옥이 법의 진화과정에서 의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오류이다. 형벌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감옥 역시 스스로에 필요한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실형 국가장치에 봉사한다 해도 그 자체는 국가장치를 넘어서는, “기율적인 보완물”임을 드러내 주고 있다.” 요약하면 푸

2) 『감시와 처벌』, 215-17쪽.

코의 기능주의는 어떤 새로운 위상학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 위상학은 더 이상 권력의 기원이 되는 어떤 특권적인 장소를 지시하지 않으며, 어떤 한정된 소재지를 허용하는 것도 아니다(여기에는 앞서의 연속성에 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현대의 물리학적 및 수학적 공간과 유사한 새로운 사회적 공간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 우리는 ‘국지적’(local)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권력은 국지적이다. 그것은 결코 일반적(global)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지적이지 않고 국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산적이기 때문이다.

### 3. 종속(subordination)의 공존

국가정치로 구체화되는 권력은 하부구조에 조응하며 특정한 생산양식에 종속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거대한 형벌의 체제(régimes)를 생산의 체계에 대응시킬 수 있다. 기술적 기제는 특히 18세기의 인구 급증과 불기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윤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힘을 조합시키며 신체로부터 유익한 힘을 있는 대로 끌어내려는 생산의 종대와 불기분하다. 그러나 실령 상부구조의 작용이나 반작용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해도, 경제적 결정요인을 ‘최종심급’으로 고찰한다면 곤란하다. 오히려 경제의 영역, 예컨대 작업장 및 공장이 권력기제를 전제한다. 이 기제는 우선 신체 및 정신에 그 내부로부터 작동하고 그 리하여 경제적 영역의 내부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에서 작동한다. “권

3) 『감시와 처벌』, 223, 249, 251쪽.

력의 관계(relations)는 관계성(rapports)에 외재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부구조의 위치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것이 생산적인 역할을 직접 담당하는 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기능적인 미시분석은 전통적인 맑스주의적 이미지에서 여전히 위계적 구조를 이루는 것을, 권력의 중심과 기율·기술이 하나를 다른 하나에 결합시키는 복수적인 선분들(segments)을 형성하고 있는 엄격한 내재성(immanence)으로 치환한다. 그리고 하나의 군집을 이루는 개인들이나 신체, 영혼은 이 선분을 가로질러 가거나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가족, 학교, 박시, 공장, 그리고 필요하다면 감옥에서도). 권력‘이란 것’(le pouvoir)의 특징은 초월적 통일성이 아니라 그 영역의 내재성이며, 포괄적 집중화가 아니라 그 선(ligne)의 연속성이며, 분절된 총체화가 아니라 그 다양한 선분들의 인접성이다. 결국 그것은 계열적 공간이다.”

### 4. 본질 또는 속성에 대한 공존

권력은 어떤 본질을 갖는 속성이며, 이것이야말로 권력을 소유하는 자(지배자)와 권력이 행사되는 자(피지배자)를 구별해 주는 특징이다. 그러나 권력은 본질을 지니지 않으며 조작적인 것이다. 그것은 속성이 아니라 관계이다. 권력관계(relation de pouvoir)는 힘들 사이의 관계들(rapports)의 집합으로서, 지배하는 힘뿐만 아니라 지배되는 힘에도 동일하게 관통하며, 그리하여 두 힘 모두는 각각 특이성들을 구성한다. “권

4) 『지식의 의지』, 124쪽.

5) 『감시와 처벌』, 148쪽(틀림없이 위계적 형상들은 존속하겠지만, 그 모든 표면을 위에 분산되고 배분되는 기능들에 의해 비로소 존속하는 것이다).

력은, 피지배자들이 권력에 대항하는 투쟁 속에서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 구속에 의존하듯이, 피지배자들에게 미친가지로 의존하면서 그들을 에워싸고 그들을 관통하며 그들의 조력에 의해 나아간다.”

푸코는 봉인장(lettres de cachet)을 분석하면서 ‘왕의 중재’는 초월적 권력의 속성처럼 높은 장소로부터 낮은 장소를 향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민들, 친지와 이웃들, 그리고 말썽을 일으키는 골치 아픈 동료를 의 간청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이들은 왕이 죄수를 감금하기를 원했고, 절대왕권을 마치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논쟁이나 업무상의 분규, 가족이나 부부간의 인정을 해결할 수 있는 내재적인 공적 기관처럼 이용했다.<sup>8)</sup> 봉인장은 이리하여 정신의학이 ‘임의수용(placement volontaire)’이라고 부르는 것의 원조격으로 제시된다. 결국 ‘권력관계’는 일반적인 또는 소 유적인 차원에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아무리 미세할지라도 개인적인 양상들이 발견되는 곳이면 어디건간에 자신을 정초시킨다. 이 옷간의 도지분쟁, 부자간의 갈등, 가정 내의 인쟁, 과도한 음주 및 성격, 공적인 쟁의, 은밀한 정사” 등 역학관계가 있는 그 어디에나 침입하는 것이다.

## 5. 양상(modalité)에 대한 공준

권력은 때로는 정계하고 때로는 기만하며, 또 때로는 공안(police)과 선전력의 힘을 빌리는 등, 말하자면 폭력과 이데올로기라는 두 양상에 의해 작동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러한 양자택일은 적절하지

6) “La vie des hommes infâmes”, pp. 22-26.

않다(이는 정당의 집회에서도 똑같이 발견되는 양상이다. 집회의 연단에서는 이데올로기가 행해지는 반면, 폭력은 실내나 가두 양쪽에 존재한다. 그러나 권력의 조직화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그 몇 편, 인접한 방에서 은밀하게 해결되는 것이다). 권력은 가령 정신을 대상으로 하는 때조차도 이데올로기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이 육체를 억누르는 때도 폭력 및 억압에 의해 작용하는 것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폭력은 그 대상이 사물이든 혹은 존재이든 간에 확실히 그 무엇인가(quelque chose)에 대한 힘의 효과를 표시한다. 하지만 폭력이 권력관계(relation)를, 요컨대 힘(force)과 힘의 관계(rapport), ‘작용(action) 대 작용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힘 사이의 관계란 “요동하고 유발하고 결합 ……” 하는 유형의 어떤 기능이다. 기술적 사회의 경우에, 그것은 재분배하고 계열화하고 구성하고 표준화하는(normaliser) 기능이다. 그것의 목록은 무제한적이며 경우에 따라서 항상 변화한다. 권력은 억압하기에 앞서 “실재성을 생산한다.” 미친가지로 이데올로기화하기 전에, 또 추상화거나 은폐하거나 하기 전에 진리를 생산한다.<sup>9)</sup>

『지식의 외지』는 성을 특권적인 사례로서 파악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만약 우리가 단어들과 문장에 집중하면서도 지배적인 담론, 특히 교회나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성의 실재성과 성에서의 진리를 추구하는 고백의 절차를 추출하지 않는다면, 언어 내에 작동하는 성적 억압의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억압과 이데올로기는 그 안에서 그것들이 작동되는 어떤 배열(agencement)이나 배치(dispositif)를 가정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며, 그 반

7) Dreyfus et Rabinow, Michel Foucault, un parcours philosophique, Gallimard, pp.

208-26에 실린 푸코의 후기 ‘주체와 권력’을 참조

8) 『감시와 처벌』, 196쪽.

대의 경우는 사실이 아님을. 푸코는 억압 및 이데올로기를 결코 간파하지 않았다. 그러나 니체가 이미 본 것처럼, 억압 및 이데올로기는 힘들 사이의 전투(combats)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전투에 의해 흩뿌려지는 모래먼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6. 합법성의 공조

국가권력은 법률 안에서 표현된다고 간주된다. 법률은 어떤적인 힘에 대하여 부과되는 평화상태로 간주되거나 강자가 전쟁 및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결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법률은 전쟁의 강제적인 혹은 자발적인 정지로서 정의되며, 이 점에서 배제(exclusion)에 의해 정의되는 비합법과 대비된다. 그리고 이런 방식에 따르면 혁명가들은 권력의 탈취와 새로운 국가장치의 확립에 의한 또다른 합법성을 추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감시와 처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의 하나는 법 대 위법성이라는 조악한 대립 대신에 불법행위들(illegalities)-법률들의 미세한 상관관계를 확립한 데 있다. 법률은 언제나, 그것이 형식화하여 구분하는 다양한 불법행위에 의해 구성된다. 법률은 위법과 완전히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종류의 법률은 명백히 다른 법률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조직하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장거리에 관한 법률을 고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결국 법률은 불법행위의 관리이다. 법률은 지배계급의 특권으로 어떤 불법행위를 허용하거나 가능케 하거나 혹은 고안한다. 또 법률은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선 피지배계급에 대한 보상으로 묵인하거나 지배계급의 이익이 되도록 만들며 또 어떤 것들은 금지하여 격리하고, 혹은 지배의 대상 및 수단으로 몰수한다.

이런 이유로 18세기에 일어난 법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불법행위의 새로운 분포를 근거로 했다. 그것은 단지 위반행위가 실제로 개인보다 계산에 관한 것으로 점차 그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술권력이 불법행위의 새로운 구별, 새로운 통제를 가능케 하는 ‘범죄행위’(delinquance)<sup>9)</sup>라는 이름의 독자적 형태를 정의하면서 그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위반을 분류하고 형식화했기 때문이다.” 1789년의 혁명에서 민중적 저항은, 구체제하에서 묵인되고 정돈되던 불법행위가 공화제 권력 아래에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써 명확히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의 공화제와 군주제는 자신들을 법적으로 일관된 표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권력의 전체적인 원리로서의 ‘법’이라는 본질적 실체성을 수립한 점에서 마찬가지로였다. ‘사법적 모델’(le modèle juridique)은 모든 전략적인 지도를 은폐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지도는 합법성의 모델에 따라 계속 기능한다. 그리고 푸코는 법이 평화상태도, 승리한 전쟁의 결과도 아니라고 말한다. 결국 법 그 자체가 전쟁이며, 진행중인 이 전쟁의 전략인 것이다. 이는 권력이 지배계급의 손에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그들 전략의 실질적인 행사라는 점과 동일한 의미이다.

9) 『감시와 처벌』, 84, 278쪽. Le Monde지와 1975년 2월 21일자 인터뷰에서 푸코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불법행위는 우발적이지 않다. 다소 불기피한 불안전장도 아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법률은 어떤 특별한 종류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 그 자체를 회피하는 방법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10) 『지식의 의지』, 114-20, 135쪽. 푸코는 결코 ‘법치국가’의 숭배(culte)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법률적 체계는 억압적 체계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다. 그 두 가지 경우는 동일한 권력 개념을 떠받친다. 즉 법률은 한쪽에서는 욕망에 대항하는 의적 반작용으로서 나타나지만 또다른 한쪽에서는 욕망의 내적 조건으로서 나타난다.

드디어 랑스 이후 비로소 새로운 무엇인가가 출현한 것 같다. 국기를 둘러싼 공범관계가 드디어 단절된 것 같다. 푸코는 어떤 종류의 개념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하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실천을 위한 새로운 좌표들(coordonnées)을 제기한다. 배후에는 하나의 투쟁이 진행중이다. 이 투쟁에 동반하는 정치적 전술, 전체(ensemble)의 전략은 총체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중첩하고 접속하고 집중하고 확장하는 것 등에 의해 진전된다. 문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Que faire?)이다. 권력정치로서의 국가에 부여되는 이론적인 특권은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권력을 탈취하려는 지도적, 중앙집권적 당이라는 실천적 관념을 이기한다. 그러나 역으로 당에 관한 이런 조직 개념 이어달로 바로 이런 권력이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푸코의 저작이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는 이것과는 다른 이론, 다른 투쟁의 실천, 다른 전략적 조직화인 것이다.

이보다 앞서 써어진 책은 『지식의 고고학』이었다. 『감시와 처벌』은 그로부터 어떤 진전을 보여 주고 있을까? 『지식의 고고학』은 단순한 반성의 책, 일반적 방법에 관한 책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지식의 고고학』은 두 종류의 실천적인 형성을 구별할 것을 제안했다. 하나는 ‘담론적’(discursives) 형성, 혹은 언표의 형성들이며, 다른 하나는 ‘비담론적’(non-discursives) 형성 혹은 환경(milieu)의 형성들이다. 예컨대 18세기 말의 임상의학은 담론적 형성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유형의 형성에도 의존하는 ‘제도, 정치적 사건, 경제적 실천과정’ 등의 비담론적 환경을 내포하는 인구 및 대중과도 관계한다. 확실히 환경은 언표를 만들어 내며 언표 역시 환경을 결정한다(déterminant), 이렇게 두 가지 형성은 서로 겹쳐지지만, 그러나 이질적이다. 거기에는 상

용관계도, 동형성도, 직접적 인과성도, 상징적인 관계도 없다.” 따라서 『지식의 고고학』은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 이 책은 두 가지 형태의 엄밀한 구별을 설정하였지만, 언표 형태의 정의와 관계를 과하게 삼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하나의 형태는 ‘비담론적’이라는 부정적인 형태로만 취급할 따름이다.

이 점에서 『감시와 처벌』은 새로운 일보를 내디뎠다. 예컨대 감옥이라는 하나의 ‘사물’이 존재한다. 이것은 환경의 형성(감금의 환경)이며 또 내용의 형태(forme de contenu)이다(내용이란 죄수를 말한다). 그러나 이 사물 혹은 이 형태는 그것을 제시하는 하나의 단어에 귀착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기의를 갖게 하는 어떤 기표에 귀착하는 것도 아니다. 감옥은 ‘범죄행위’ 및 ‘범죄자’와 같은 전적으로 다른 단어, 다른 개념에 관계되며 이들 단어는 위반(infractions), 벌 그리고 위반과 형벌의 주체를 표시하는 새로운 방법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언표들의 형성을 표현의 형태(forme d'expression)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두 가지의 형태는 18세기라는 동일한 시기에 나타났다지만 그러나 여전히 서로 이질적이다.

형법은 사회의 방위에 관한 죄와 처벌이라고 인명되도록 하는 하나의 진화과정을 거쳐왔다(그것은 이제 군주권의 souverain 복수, 군주권의 부활과 무관해졌다). 형법은 정신과 마음을 향해 위반과 처벌 사이의 관념 연립을 성립시키는 코드(code)이다. 그러나 감옥은 신체에 작동하는 새로운 방법이며, 형법과는 전혀 별개의 지평으로부터 나온다. “감옥이라는 이 온갖 기율이 집중된 엄격한 형태는 18세기에서 19세기로의 전환기에 규정된 형벌체계의 내생적 요소가 아니다.”<sup>11)</sup> 요컨대 형법은 범죄

11) 『지식의 고고학』, 212-13쪽.



에 대한 ‘언표 가능한 것’(l'émouvable)에 관련된다. 형법은 위반을 분류하고 번역하며 형벌을 계산하는 언어의 한 체계이다. 그것은 하나의 문턱이기도 하면서 또한 하나의 언표적이다. 그렇지만 감옥은 ‘가시적인 것’(le visible)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단지 죄와 죄인을 보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가시성을 구성하며, 철저한 견고한 외관을 가진 것 앞에 있는 하나의 빛(lumière)의 체계이다. 감옥은 ‘일망감시 방식’(Panopticism)’에 의해, 즉 시간적인 배열(agencement)과 빛의 환경에 의해 정의된다(중심의 탑과 주변의 독방들). 이 방식에 의해 간수는 보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나, 죄수는 언제나 보일 뿐 서로 볼 수 없다.<sup>13)</sup>

빛의 체계와 언어의 체계는 동일한 형태가 아니며 동일한 형성물을 갖지도 않는다. 푸코가 무엇 때문에 이전의 체계에서 이 두 가지의 형태를 부단히 함께 연구하였는지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두 형태를 『임상의학의 탄생』(Naissance de la clinique)에서는 가시적인 것과 언표가능한 것으로 표현했고, 『광기의 역사』(Histoire de la folie à l'âge classique)에서는 종합병원(l'hospitale général)에서 보여지는 것으로서의 광기(folie)와 의학에서 묘사되는 것으로서의 비이성(la déraison, 17세기 이전의 치료를 담당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다)으로 대별하였다. 『지식의 고고학』이 인식하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정적인 표현으로만 지시했던 ‘비담론적 환경’은 『감시와 처벌』에서 드디어 긍정적인 형태를 발견하게 된다. 언표가능한 것과는 구별되는 이 가시적인 것의 형태는 푸코 모든 저작의 부단한 관심 대상이었다. 예컨대 19세기 초 대중

12) 『감시와 처벌』, 259쪽, 2부 1장(형벌의 개혁운동과 그 언표)과 2장(어떻게 감옥이 형벌체계에 속하지 않고 다른 모델들에 귀속하는가)을 참조.

13) 『감시와 처벌』, 3부 3장 ‘일망감시장치’(Panopticon)의 묘사 부분을 참조하라.

과 인구가 가시화되면서 동시에 의화적인 언표는 언표가능한 것을 새롭게 획득한다(생물조직의 손상 및 생리해부학적인 상관관계……).<sup>14)</sup>

물론 내용의 형태로서의 감옥은 그 자체 독자적인 언표들과 규칙체계들(règlements)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표현의 형태로서의 형법, 범죄행위로서의 언표 역시 독자적인 내용을 갖는다. 단지 그 내용이 일련의 새로운 위반이며, 개인에 대한 공격보다는 오히려 재산의 침해인 것이다.<sup>15)</sup> 그리고 이들 두 형태는 부단히 상호 접촉하고 상호 침투하고 서로의 성분을 빼앗는다. 즉 형법은 감옥을 향하여 죄수를 끊임없이 보내고, 다른 한편으로 감옥은 부단히 범죄행위를 재생산하고 범죄행위를 하나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형법이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는 목표를 감옥 역시 지속적으로 실현한다(사회의 방위, 수형자의 도덕적 개조, 형벌의 조율, 개별화 individuation).<sup>16)</sup>

이 두 형태 사이에는 서로간의 전체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어떤 공통의 형태가 있거나 일치 혹은 상응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감시와 처벌』은 『지식의 고고학』이 ‘지식’에 묶인 채 머물러 있고, 지식 속에 있는 언표의 우선성에서 중단했기 때문에 제기할 수 없었던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첫째는 사회적인 장에 내재하는 공통의 원인이 형태의 외부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가이다. 두 번째는 두 형태의 배열, 조정, 상호 침투는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가이다.

14) 『지식의 고고학』, 214쪽.

15) 『감시와 처벌』, 77-80쪽(위반의 진전과 변화에 대하여).

16) 『감시와 처벌』의 제4부 1장과 2장 ‘어떻게 해서 감옥이 제2의 단계로 배치되면서 형벌체계에 편입하여 범죄행위를 ‘만들어 내고’ 혹은 “대상으로서의 범죄행위”를 구성하는가(282쪽)에 대하여.



여기서 형태(forme)는 두 가지 의미로 말해질 수 있다. 형태는 소재들(matières)을 형성하고 혹은 조직한다. 또한 형태는 기능을 형성하고 목표로 삼으며, 또 그것에 목표를 부여한다. 감옥만이 아니라 병원, 학교, 군 막사, 공장들도 역시 형성된 소재이다. 처벌은 보살피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노동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식화된 하나의 기능이다. 두 형태는 서로 환원불가능하지만(실제 보살핌은 17세기의 종합병원과 무관하며, 18세기의 형법은 본질적으로 감옥과 관계 없다), 현실에서는 일종의 대응관계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상호 정합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소재와 기능을 구체화하는 형태를 추상함으로써 우리는 순수한 소재와 순수한 기능을 인식할 수 있다.

푸코는 '일망감시방식'에 대해, 감옥을 특징짓는 광학적인(opaque) 혹은 빛의 배열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든가 일반적으로 가시적인 소재(감옥만이 아니라 공장, 병원, 학교 등)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온갖 연표가능한 기능을 가로지르는 기관이라고 추상적으로 정의하든가 한다. 그러므로 '일망감시방식'에 대한 추상적인 정식화는 더 이상 "보이지 않은 채 모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복수성으로서의 인간 개체에 대해 그저 권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제 다음의 것만을 확인해 두자. 복수성은 어떤 제한된 공간에 한정되어 정악된 것, 그리고 권리의 부과는 공간으로서의 분배, 시간에서의 질서의 계열화, 공간-시간에서의 구성 등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라고....." 이는 무한한 목록이지만, 늘 형성되

17) 이러한 엄밀성은 '지식의 의지' 이후 또다른 순수한 소재-기능을 발견하면서 더욱 요청된다. 이때 개별적인 복수성은 일련된 공간 속에서 복수(fombrures)로 되며 그 기능은 더 이상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삶을 통치하는"(gérer) 것이 된다. '지식의 의지'는 이 두 가지 모두 대면할 것이다(182-85쪽).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는 뒤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거나 조직되지 않은 소재 그리고 형식화되거나 목적화되지 않은 기능, 결국 분리될 수 없는 두 변수와 항상 관계를 갖는다. 이 비형식적인(informe) 새로운 차원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푸코는 이것에 실로 정확한 이름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다이아그램'(diagramme)이다. 요컨대 그것은 "온갖 장에, 마찰로부터 추상화된 기능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특정한 용법으로부터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이아그램은 더 이상 창각적인 혹은 시각적인 고문서가 아니다. 그것은 지도(carte)이며, 지도제작법(cartographie)이며, 사회적인 장 전체와 동일한 의견을 가진다. 그것은 추상기계(machine abstraite)이다. 그것은 무형의 소재들과 기능에 의해 정의되며 내용과 표현 사이에, 근본적 형성과 비담론적 형성 사이에 어떤 형태의 차이도 무시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보거나 말하는 것을 기능케 하지만 자신은 눈멀고, 귀머 그런 기계이다.

다이아그램의 많은 기능과 소재가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다이아그램이나 시-공간적 복수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역사 속의 사회적인 장들만큼 다수의 다이아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푸코가 다이아그램의 개념을 내세운 것은 권력이 사회적인 장 모두에 대한 분할(quadrillage)을 작동시키는 근대의 기술적 사회와 관련해서이다. 만약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염병'(pest)의 모델이다. 그것은 병든 도시를 분할하고 어떤 조그마한 세부도 규제한다. 그러나 넓은 군주권사회를 고찰해 보면 역시 그곳에도 다른 소재, 다른 기능이긴 하지만 다이아그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도 역시 하나의 힘은 다른 힘에 행사되는데, 그러나 조합하고 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힘의

18) '감시와 처벌', 207쪽푸코는 이 점에 관하여 "일망감시장치를 단지 '건축적 광학적 체계'로 한정하여 고찰하는 한 불충분한 정의만을 얻을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악화를 추구한다. 또 세부를 구분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균중을 분배하는 것, 분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추방하는 것을 지향한다(이것은 '나방'lepre의 모델이다).<sup>19)</sup>

이것은 다른 다이어그램, 다른 기계로서, 공장보다 연극(theatre)에 가깝다. 결국 이것은 힘들 사이의 다른 관계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회로부터 다른 사회로의 이행과정인 매개적 다이어그램을 고찰할 수 있다. 예컨대 나폴레옹적(napoléonien) 다이어그램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 경우 "절대권을 갖는 군주제적, 의식적인(fituel) 실천과 무한한 기술의 위계적, 영속적인 실천이 결합하는 지점에서,"<sup>20)</sup> 기술의 기능은 군주권의 기능과 결합한다. 왜냐하면 다이어그램은 실로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며, 소재와 기능을 부단히 회전하며 변이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다이어그램은 간(間)사회적이며 생성(devenir)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기존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유형의 실재성, 새로운 진리의 모델을 만들어 낸다. 그것은 역사의 주체가 아니며 역사 위에서 그것을 조망하는 주체도 아니다. 그것은 선행했던 실재들과 의미작용들을 해체하고 다양한 출현 및 창조성의 지점, 예기치 못한 연결(conjunction), 있을 법하지 않은 연속체들을 구성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낸다. 다이어그램은 생성과 함께 역사를 역행(double)한다.

모든 사회는 하나이든 복수이든 그 다이어그램을 가진다. 그러나 푸코는 잘 구성된 계열들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분석했을 뿐, 이른바 원시 사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런 사

19) 이 두 모델의 대비에 관해서는 『지식의 의지』, 178-79쪽, 그리고 나방과 전염병의 전형적인 대립에 대해서는 『감시와 처벌』, 197-201쪽.

20) 『감시와 처벌』, 219쪽.

회 역시 다이어그램의 매우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회도 정치와 역사를 가지며, 친족의 구조로부터 추론되거나 혈족간의 교환관계로 환원되지 않는, 결연관계(alliances)의 조직망을 가지기 때문이다. 결연관계는 힘의 관계(증여와 역증여)를 구성하면서 권력을 조직해 내는 작은 국지적 집단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여기에서 다이어그램과 구조의 차이가 명확해진다. 결연관계는 유연하고 횡단적인 조직망, 즉 수직적인 구조와 대비되는 수평적인 조직망을 편성하여 어떤 명백한 결합과도 구별되는 실천, 과정, 전략을 결정하며 폐쇄된 교환의 순환이 아닌, 항상적인 불균형상태의 불안정한 물리적 체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이로부터 리슈 Leache와 레비스트로스 Lévi-Strauss 사이의 논쟁이 제기되었고, 피에르 부르디외 Pierre Bourdieu의 이른바 전략의 사회학이 등장한다).

나는 그렇다고 푸코의 권력 개념이 그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원시사회에 특히 적합하다고 결론 내리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려는 핵심은 그가 주로 다루고 있는 근대사회가 오히려 힘의 관계들 및 특정한 전략들을 표출하는 다이어그램을 차례로 발달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거대한 집합들, 기본적 연계, 근대제도하에서 미시적 관계들을 추적할 필요가 있는데, 이 미시관계들은 보다 큰 단위를 파괴하기보다는 그것을 실제로 구성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가브리엘 타르드(Gabriel Tarde)가 미시사회학을 창설하면서 했던 작업이다. 그는 사회적인 것(le social)을 개인적인 것에 의해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무한히 작은 관계들(rapports infimesimaux)을 통해 거대한 집합들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신념이나 욕망(양자들, quanta)의 전파인 '모방'(imitation)과 그 모방의 최초 두 경향의 조우인 '발명'(invention)이 있다. 결국 무한히 작은 관계들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서는, 바로 힘의 진정한 관계이다.

다이어그램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앞서 분석한 특성에 따라 권

력을 구성하는 힘 관계들의 표출이다.

일명감시의 배치(dispositif)는 어떤 권력관계와 기능 사이의 단순한 중첩점, 변환 점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관계를 하나의 기능 안에서 작동하게 만들고, 또 이 권력관계에 의해 하나의 기능을 작동시키는 방식이다.<sup>21)</sup>

우리는 힘의 관계 혹은 권력관계가 미시물리학적, 전략적이며 다수의 점에서부터 확산한다는 것, 그리고 이 관계가 특이성들을 결정하며 순수한 기능들을 구성한다는 것을 보았다. 다이어그램 혹은 추상기계는 힘 관계의 지도이며 밀도(densité), 강도(intensité)의 지도이고 국지화할 수 없는 원초적 연계에 의해 진행된다. 또 그것은 각 체계마다 온갖 점을 통과하거나, “혹은 오히려 점에서부터 점으로의 온갖 관계”<sup>22)</sup>를 통과한다. 물론 그것은 초월적인 이념(transcendante Idee)이나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또 실체에 의해 규정되고 형태와 용법에 의해 정의되는 경제적 하부구조와도 무관하다. 그렇지만 다이어그램은 단일화되지 않는, 그리고 사회적 장 전체와 공통의 외연을 갖는, 그런 내재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추상기계는 힘들의 관계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배열들의 원인과 같다. 이때 힘들의 관계는 그것들이 생산해 내는 배열들의 총위의 ‘외쪽이 아닌’, 그 내부에 위치한다.

여기서 내재적 원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 효과 안에서 현실화되고(actualise), 적분되고(intègre), 미분되는(différencie) 원인이다.

21) 『감시와 처벌』, 208쪽.

22) 『지식의 의지』, 122쪽 “권력은 어느 곳이나 partout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를 포괄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처에서 생성되기 때문이다”.

혹은 오히려 내재적 원인은 그 효과를 현실화하고 적분하고 미분한다. 이런 방식으로 원인과 효과, 추상기계와 구체적인 배열들이 것에 대해 푸코는 ‘배치’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한다) 사이에는 상관관계 또는 상호전체가 있다. 만약 효과가 무언가를 현실화한다면, 이는 힘의 관계 혹은 권력관계가 자신의 유동적 소재와 분산하는 기능에 형태를 부여할 수 있는 거시적인 집합 안에 들어가지 않은 채, 잠재적이고 불안정하고 소멸하며 분자적인(moléculaires) 상태로 있으면서 단지 상호작용의 가능성만을 정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현실화는 처음에는 국지적이고 마지막에는 일반적으로 되면서 힘 관계의 정렬, 동질화, 총화 등을 실현해 가는 적분이며 혹은 점진적인 적분의 총체이다. 결국 법은 불법행위의 적분일 뿐이다.

학교, 작업장, 군대 등의 구체적인 배열들은 자격을 갖춘 실체들(어린이, 노동자, 병사)과 목적화된 기능(교육 등)에 대한 적분을 작동시키면서 점차 ‘국가’에까지, 나아가 전 지구적 범위로 적어도 보면 ‘시장’(Marché)에까지 포괄적인 적분을 추구한다.<sup>23)</sup> 결국 현실화-적분은 차이화(différenciation)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이는 현실화되는 원인이 최고수준의 통일성(Unité)이기 때문이 아니다. 반대로 다이어그램의 복수성들이 현실화하거나 힘의 미분(le différentiel)이 적분되는 것은 오직 다양한 경로를 취함으로써, 그리고 이원적으로 쪼개지면서 차이화의 선을 따라감으로써 비로소 기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화의 선이 없다면 모든 것은 현실화되지 못하는 원인의 분산상태 안에 머물러 버릴 것이다.

23) 적분 요소들(les intégrants),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는 권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관계를 전제로 삼으며, 단지 국가는 이 관계를 갱신하고 안정화하는 데 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식의 의지』, 122-24쪽, 또 *Libération*지의 1984년 6월 30일자에 실린 푸코의 글을 참조.

사물은 이중화(dédoublment) 혹은 분리(dissociation)에 의해, 또 다양한 형태를 창조하여 그 사이에서 스스로를 분할하는 것에 의해 비로소 실현된다.<sup>24)</sup> 그러므로 거대한 이분법, 즉 이질적인 계급들의 혹은 통치되는 것과 통치하는 것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이분법이 나타나게 되는 곳은 바로 여기이다. 그러나 나아가 현실화의 두 형태가 분열하고 차이화(미분)되는 곳도 바로 이 지점이다. 즉 표현의 형태와 내용의 형태, 담론적 형태와 비담론적 형태, 연표가능한 것의 형태와 가시적인 것의 형태라는 모습으로. 이는 정확히 내재적 원인이, 한편으로는 가시적인 것의 소개들을 형성하며(formera), 다른 한편으로는 연표가능한 기능들을 형식화하는(formalisera) 하나의 중심적 차이화에 의거해 자신이 현실화하는 형태들을, 기능뿐 아니라 소개라는 측면에서도 무시하기 때문이다. 가시적인 것과 연표가능한 것 사이에는 어떤 간극, 어떤 이점 이 놓여 있다. 그러나 이 형태들 사이의 이점은 비형식적인 다이어그램 이 살짝 들어가, 필연적으로 분산하며 창조 원원불가능한 두 방향으로 구체화되는 장소——푸코는 이것을 ‘비장소’(non-lieu)라고 부른다——로 된다. 구체적인 배열들은 추상기계가 스스로를 현실화하는 이 간극(intersice)에 의해서 갈라진다.

『감시와 처벌』에서 제기된 두 문제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형태들 혹은 형상들 사이의 이원성은 비형식적으로 작동하는 내재적인 공통원인을 배제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각각의 경우, 각각의 구체적인 배치에서 작동하는 공통원인은, 선택 두 형태의 요소들 혹은 선분들이 원원불가능하고 이형적인 상태를 지속할지라도 이들 사이의 혼합, 포

24) 『차이화의 내적 조건으로서의 권력관계에 대해서는』 『지식의 의지』, 124쪽을 보라  
어떤 가상적인 것의 현실화는 항상 하나의 차이화라는 이러한 사유는 예컨대 베르  
그송에 의해 깊이 있게 분석되었다.

획, 방해 등에 대한 축정을 중단하지 않는다. 모든 배치는 가시적인 것과 연표가능한 것의 진득한 혼합물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형무소의 체계는 동일한 형상의 담론과 건축을”, 포스트그램과 기계를 “연결한다.”<sup>25)</sup> 『감시와 처벌』은 푸코가 이전의 책에서 보인 외관상의 이원론을 명백히 벗어난 체이다. 물론 그때도 이 이원론은 이미 복수성의 이론을 향하여 이동중이었다. 만약 지식이 가시적인 것과 연표가능한 것을 교차시키는 데 있다면, 권력은 지식이 전제하는 원인이고 반대로 권력의 그것이 행위로 옮겨지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이분화 및 차이화로써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지식의 장을 상관계적으로 구성하지 않고서는 권력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동시에 권력관계를 전제로 구성하지 않고서는 지식이 존재하지 않는다.”<sup>26)</sup> 오류 또는 가설조차도 힘 사이의 관계가 중단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지식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특정한 권력의 유형으로 귀착하지 않는 진리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작용하고 있는 권력을 함축하지 않거나 표현하고 있지 않는 과학이나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가시적인 것에서부터 연표가능한 것으로 이동하며, 또 반대로 이동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총체화하는 어떤 공통의 형태, 일치성 또는 일 대 일 대응 따위는 없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횡단적으로 움직이면서 형태의 이원성 속에 자신의 고유한 작용조건과 현실화의 조건을 발전하는 힘의 관계들뿐이다. 만약 형태 사이에 정합성이 있다면 그것은 형태의 ‘만남’(rencontre)으로 나타난다(만남이 강제되는 조건에서). “만남은 그것이 확립한 새로운 필연성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sup>27)</sup> 이리하여 감옥의 가시성과 형태의 연표는

25) 『감시와 처벌』, 276쪽.

26) 『감시와 처벌』, 32쪽.

서로 만나게 된다.

푸코는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간에 어떤 기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감독기계'에 대해 말하지만 학교기계, 병원기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sup>27)</sup> 구체기계는 두 형태를 갖는다(bifurmes) 배치 또는 배열들이다. 추상기계는 비형식적인 다이어그램이다. 요컨대 기계들은 기술적(techniques)이기 이전에 우선 사회적인 것이다. 혹은 차라리 물질에 관한 기술이 있기 이전에 인간에 관한 기술이 있다. 물질에 관한 기술은 확실히 그 효과를 사회적인 장 전체로 확장해 가는데, 그러나 이 기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구 또는 물질적 기계가 어떤 다이어그램에 의해 선택되고 배열들에 의해 담당되지 않으면 안된다. 역사가들은 종종 이러한 조건에 직면하곤 한다. 이른바 그리스의 장감보병부대는 밀집군단 배열의 일부로 구성되었다. 또 마구의 동자는 봉건제 다이어그램에 의해 선택되었다. 땅을 파는 봉, 팽이, 그리고 쟁기는 일직선상의 진보를 이룬 것이 아니라 각각 인구밀도 및 휴경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집단기계들에 귀속한다.<sup>28)</sup> 푸코는 이와 관련하여 총이 어떻게 "더 이상 유용적이거나 혹은 부동하는 밀집부대(la masse)를 원리로 하지 않고, 분할가능하며 구성가능한 선폰의 기하학을 원리로 하는 기구라는 의미로만 존재하게 되는가"<sup>29)</sup>를 설명한다.

그러므로 기술은 기술적이기 이전에 사회적이다.

27) 『감시와 처벌』, 237쪽 참조.

28) 이는 푸코가 현대의 역사기와 맺는 관계 중의 하나이다. 도라케 등을 기술하면서 브로델은 "도구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Civilisation matérielle et capitalisme I, p. 128). 장감보병부대에 관해 데티앙느(Detienne)는 "기술은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인 것, 정신적인 것에 내재적이다"라고 말한다(J. P. Vernant, *Problèmes de la Grèce ancienne*, Mouton, p. 134).

29) 『감시와 처벌』, 165쪽.

활활 타는 용광로 및 증기기관에 비해 일망감시방식은 거의 주목 받지 못했다. .... 그러나 기술방식들(les procédés disciplinaires)을 증기기관 같은 발명품과 곧바로 대비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기술의 방식은 증기기관에 비해 매우 하위에 있겠지만, 관점을 바꾸면 훨씬 더 상위에 위치하는 것이었다.<sup>30)</sup>

그리고 협의의 의미에서 기술방식이 배열 안으로 도입되는 것은 배열 자체가 그 기술과 함께 다이어그램에 의해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감옥은 군주권사회에서는 주변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았을지 모른다(봉인장). 감옥이 기계로서 존재하는 것은 새로운 다이어그램, 즉 기술의 다이어그램에 의해 감옥이 그 '기술적 문턱'<sup>31)</sup>을 뛰어넘었을 때이다.

추상기계와 구체적인 배열들은 마치 두 극을 구성하고 있고, 우리는 한쪽에서부터 다른 쪽으로 부지불식간에 이동하는 듯하다. 때때로 이 배열들은 칸막이벽이나 물셀들 없는 장벽, 그리고 형태상의 불연속성 등으로 명확하게 분리되는, 견고하고 농밀한 선분들로 분포한다(학교, 군대, 작업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옥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가 "너는 더 이상 학교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또 때로 배열은 유연하고 분산적인 미시선분성(micro-segmentarité)을 자신들에게 부여하는 추상기계 안에서 소통한다. 이리하여 그것들은 모두 유사해지며, 감옥 역시 형태를 갖지 않는 기능의, 혹은 연속하는 기능의 변수로서 다른 배열을 관통하며 확장한다(학교, 병영, 작업장은 이미 감옥이다.....).<sup>32)</sup>

30) 『감시와 처벌』, 226쪽.

31) 『감시와 처벌』, 225쪽.

32) 이에 관한 핵심적인 텍스트는 『감시와 처벌』, 306쪽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의 국에서 다른 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각각의 배열이 이리저리한 정도(degré)로 추상기계를 실현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이어그램의 실현에 필요한 계수들(coefficients)이다. 그리고 그 정도가 클수록 배열은 더욱더 다른 나머지 것에게로 분산하여 사회적 장 전체를 뒤덮을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푸코의 방법론은 그 자체로 최고의 유연성을 획득한다. 왜냐하면 계수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배열에서 다른 배열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해군병원은 다양한 회로들의 교차지점에 위치하면서 온갖 방향으로 여과장치 및 교환행위를 내보내고 온갖 종류의 이동을 제어하는 반면, 동시에 이 이동성은 해군병원을 높은 정도의 횡단로, 다이어그램 전체를 뒤덮는 의학적 공간으로 만들었다.<sup>33)</sup> 그러나 동일한 배열에 대응하는 계수는 어떤 사회적 장에서 또다른 장으로 이동할 때나 동일한 사회적 장 안에서라도 변화한다. 이리하여 감옥에는 세 가지의 단계(sades)가 존재하게 된다. 군주권사회에서 감옥은 처벌에서는 다른 배열들의 주변부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군주권의 다이어그램을 낫은 정도밖에 실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감옥은 온갖 방향으로 확산하면서 형벌의 목적을 떠맡을 뿐 아니라, 다른 배열들에 스며든다. 감옥은 기율의 다이어그램의 요구조건을 고도로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여전히 감옥은 이전에 수행하였던 역할에 대한 '악명'에서 우선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율적 사회가 발달하면서 형벌의 목적을 실현하고 나아가 그것을 다이어그램 전체에게까지 실현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발전하게 되더라도, 감옥은 여전히 고도의 계수를 부여받으며 그대

33) 『감시와 처벌』, 145-46쪽(“의학적 감시는 다른 일련의 모든 통제와 상호 불가분한 관계를 갖는다. 예컨대 탈주병에 관한 군사상의 통제, 상품에 관한 계부상의 통제, 그리고 고의약, 식량, 행방불명, 치료, 사망, 피병에 관한 행정상의 이리저리한 통제들”).

로 남아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감옥제도의 개혁이라는 주제가 점점 사회적 장에 출몰하여 마침내 감옥으로부터 최고의 지위를 뺏고, 그것을 국지적이고 한정된, 고립적인 배열의 수준으로 강등시켜 버리게 된다.<sup>34)</sup> 감옥이 이처럼 동요하듯이, 모든 것은 기율의 다이어그램의 실현 정도를 측정하는 눈금만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위치하는 것이다. 다이어그램의 생성과 변이가 존재하듯이 배열들의 역사가 존재한다.

이것은 단지 푸코의 방법론적 특징에 한정되지 않는, 그의 사유에서 중대한 상파에 속한다. 푸코는 무엇보다 감금(enfermement)에 관한 사상가로 간주되었다(『광기의 역사』에서 보호원, 『감시와 처벌』에서 감옥).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틀렸다. 그리고 이런 오해는 그의 전체적인 기획을 이해하는 데 방해물이 되고 만다. 예컨대 폴 비릴리오(Paul Virilio)는 근대사회의 문제 및 ‘공안’의 문제는 감금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voiture)의, 속도와 가속의, 속도의 극복과 제이의, 열려진 공간에서 회로와 분할의 문제라고 선언하면서, 푸코를 반박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 이 푸코가 말하고자 한 것이다. 그것은 이 두 필자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요제에 대한 분석과 푸코의 해군병원 분석에서 드러난다. 하지만 비릴리오가 갖는 오해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의 저작의 힘과 독창성은, 독립적인 철학자들 사이의 조우는 언제나 예정치 않은 지역에서 이뤄짐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그다지 제기 없는 저자가 끝이끝대로 독해하면서, 푸코가 감금만을 강조한 사상가라고 비난하거나 역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실로 세련된 분석을 기했다고 일방적으로 찬양할 때 문제는 더 심각하다.

34) 형벌의 개선경향, 그리고 왜 감옥이 이 유용한 형태로서의 역할을 중단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감시와 처벌』, 312-13쪽을 참조



그러나 사실 푸코에게 감금은 본원적인 기능에서 파생된 이차적인 기능에 지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아주 다른 것이다. 17세기 종합병원과 보호원에 광인을 가둔 방식과 18, 19세기 감옥에 범죄자를 감금한 방식은 아무런 유사성도 없다. 광인의 감금은 ‘추방’의 양식, 나병환자의 모델에 따라 행해졌다. 반면 범죄자의 감금은 ‘분할’의 양식, 전염병환자의 모델에 따라 행해졌다.<sup>35)</sup> 이 분석은 푸코 저작의 가장 훌륭한 면모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보다도 추방하는 것, 분할하는 것은 모두 이후 감금의 배치에 의해 실행되고 형식화되고 조직되는 외재성(extériorité)의 기능이라는 것이다. 독방으로 구별되는 견고한 분절체(segment)로서의 감옥은 유연하며 동적인 기능, 즉 통제되는 소통, 그리고 자유로운 영역을 가로지르며 감옥을 회피하는 방법 등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조직망 전체에 귀속된다. 그것은 체포도 신고도 필요없는 카프카식의 ‘무한한 지연’(l'attenuement illimité)과는 전혀 다르다. 블랑쇼가 푸코에 대해 적절히 서술한 바와 같이, 감금은 외부와 관련되며 감금되는 것 역시 외부에 있다.<sup>36)</sup> 즉 배일이 그 무엇인가를 감금한다는 것은, 그것을 배제하거나 외부에 ‘몸으로써’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신체의 감금뿐 아니라 신체의 내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푸코는 종종 답론적인 형태, 비답론적인 형태를 상기시킨다. 그러나 이 형태들은 아무것도 감금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내재화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언표 혹은 기시적인 것이 분산하면서 통과하는 ‘외재성의 형태들’(formes d'extériorité)이다. 그것은 대체로 방법의 문제에 해당한다. 즉 외관상의 외재성으로부터 본질인 ‘내재적인 핵심’으로 차츰 이동하는 대신, 말과 사물을 그 자체의

35) ‘감시와 처벌’, 197-201 쪽 및 ‘광기의 역사’, 제1장.  
36) 블랑쇼, 『무한의 대화』, 292 쪽.

구성적 외재성으로 회귀시키기 위해서 내재성이라는 환상을 배척해야 한다.”

적어도 세 가지의 상관적인 삼금들(instances)을 구분해야 한다. 우선 힘의 비형식적인 요소로 존재하는 외부가 있다. 힘은 외부에서 와서 외부에 의존하고, 반면 외부는 힘의 관계를 취하면서 그 관계의 다이어그램을 추출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배열의 환경으로서 외재적인 것(l'extérieur)이 있다. 힘 관계는 여기에서 현실화된다. 마지막으로 외재성의 형태들(des formes d'extériorité)이 있다. 왜냐하면 현실화는 배열을 상호 분할하는 상이하면서 외재적인 두 형태들 사이의 분열, 이점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감금 및 내재화 intériorisations는 이들 형태의 표층에서 드러나는 과도적인 행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뒤에 ‘외부의 사유’(la pensée du dehors)라는 형태로 등장하는 모든 집합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확실히 그 어느 것도 푸코에서는 고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드러났다. 형태들의 역사, 문서고(archive)는 힘과 다이어그램의 생성에 의해 이중화된다. 힘들은 “어떤 한 지점(point)에서부터 다른 지점까지의 온갖 관계” 안에 나타난다. 즉 다이어그램은 지도이며, 혹은 차라리 많은 지도의 중첩이다. 그리고 어떤 다이어그램으로부터 다른 다이어그램으로 이르면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진다. 또 다이어그램은 그것이 연결하는 무수한 점들의 결에 비교적 자유롭게 해방된 점, 창조와 변동과 저항의 점들을 반드시 지낸다. 그리고 아마도 이 모든 지도를 이해하려면 이 점들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이어그램의 연속 혹은 불연속의 연결방식을 이해하려면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투쟁’(lutes)의 기초 위에

37) 역사와 “외재성의 체계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지식의 고고학’, 158-61 쪽을 참조.



## 제2부 위상학, '다르게 사유하는 방법'

서, 또 그 투쟁의 다양한 양식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sup>38)</sup> 왜냐하면 각각의 다이어그램은 멜빌\*이 말한 바 있는, 뒤틀리고 구부러진 외부의 선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멜빌에 따르면, 이 외부의 선은 시작도 끝도 없이 저항의 온갖 지점을 통과하여 언제나 가장 최선의 것에 관계하면서 다이어그램을 회전시키고 충돌시키는 대양의 선(ligne océanique)이다. 그렇다면 1968년은 아주 흥미 있는 선의 뒤틀림(torsion)인가. 무수한 일탈이 가능했던 선, 이로부터 쓴다는 것에 대한 세 가지의 새로운 정의가 내려졌다. 쓴다는 것은 투쟁하고 저항하는 것, 쓴다는 것은 생성하는 것, 쓴다는 것은 지도를 작성하는 것. “나는 한 사람의 지도작성자이다…….”<sup>39)</sup>

38) 『감시와 처벌』은 “전쟁의 울람”이라고 말하는 데서 돌연 중단되고 있다(“나는 여기서 이 책을 중단한다……”, 315쪽). ‘저항의 지점’이라는 주제는 『지식의 의지』, 126-27쪽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다이어그램과 힘들의 관계, 그리고 투쟁의 상이한 종류들을 분석하는 것은 그 이후의 텍스트들에서이다. Dreyfus et Rahinov, 앞의 책, pp. 208-16.

\* Herman Melville(1819-1891) : 미국의 소설가. 조난 경험과 선원생활을 바탕으로 한 『백경』 등의 작품을 남겼다. 정체성의 불안정과 실재에 대한 현혹으로 인한 내적 갈등을 주로 다룬 그의 작품은 가시적 사실들에 기초한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

39) *Nouvelles littéraires*, 1975년 3월 17일자에 실린 푸코 인터뷰를 참조할 것.